

기고

리튬이온배터리, 편리함 속의 불씨를 경계하자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 보급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나주 노안면에서 트럭에 적재된 드론용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고온·밀폐된 보관환경 속에서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빠른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길거리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가벼운 무게, 충·방전 효율성이 뛰어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뒤에는 과충전, 외부충격, 부적절한 보관으로 사용 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일상 가까이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 지난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에 달하며 이 중 전동 킥보드 485건(77.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 인증 제품 충전기 사용 - 인증되지 않은 저가 충전기 사용은 위험을 키운다
2. 충전 관리 - 충전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3. 충전 장소 - 통풍이 잘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충전한다. ※현관문, 비상구 근처 충전금지(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한)
4. 외부 충격 주의-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임의 개조·수리하지 않는다
5. 안전한 보관 -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작은 부주의가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사랑! 사랑! 사랑!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진다. 심장이 쿵쿵거린다. 짙붉은 동백 꽃무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지 않아도 통한다. 사랑이라는 큰 줄기의 힘이 강한 원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 어떤 악조건도 사랑은 헤쳐갈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에 정부가 한글날을 맞이해 조사한 결과도 역시 '사랑'이라는 말이 1위였다. 아기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단어도 1위가 사랑이었다.

그만큼 사랑은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것이다. 사랑은 곧 행복으로 통한다. 사랑이 없이는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왜일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 마련이다.

특히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상호 간에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준 사람이라면 미움을 넘어 증오심까지도. 하지만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미워하는 한 상대방도 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상생작용을 일으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미움의 대상보다는 미워하는 자가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인가.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고통받는 것도 역설한데 상대방은 그것을 인지도 못하면서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하

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누워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참으로 길이 남을 묘비명이다. 정권을 바뀐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 정권을 잡은 쪽이나 그렇지 못한 쪽이나 각자의 처지에 따라 보는 프리즘이 다를 것이다. 나아가 길을 놓고 선택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택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 보복해볼까 하는 생각만 갖게 되면 이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이 나라의 어른들이, 종교계의 대표들이 중용지도를 들고서 나서보면 어떨까. 그런 거목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시간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

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 포상제는 이러한 위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과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

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음력 9월 10일)

<p>48년생 울타리 밖에서도 가장 노릇해보자. 60년생 강한 끌림이 오는제 안을 들어보자. 72년생 실수를 통해 배워가고 발전하자. 84년생 이유 있는 반대 강하게 해야 한다. 81년생 많은 뜻이 담겨진 축하를 받아보자.</p>	<p>49년생 대목 맞은 장사여기저기 비뚤다. 61년생 개 팔길 역경도 기쁘게 가야 한다. 73년생 끈기와 인내로 번전을 불러. 85년생 아직은 미완성 단계를 거쳐보자. 97년생 주인공 자리 화려함을 뽐내보자.</p>	<p>50년생 갈치며 모양보다 속을 알아. 62년생 애뜻함이 담겨진 선물을 받아보자. 74년생 변화의 시기 두려움과 맞서보자. 86년생 이해를 넘어 가슴으로 품어보자. 98년생 충분한 자신감 불꽃놀이도 전하자.</p>
<p>51년생 무소식이 회소식 칠고 내내. 63년생 작은 승부의 차이 각오를 다시 하자. 75년생 수줍은 고백을 예쁘게 받아. 87년생 필연인만 남손가락을 걸어보자. 99년생 대가 없는 수고도 열심해야 한다.</p>	<p>52년생 남의 집 이야기 금기어로 해야 한다. 64년생 습다 하는 범심 근축을 치러야 한다. 76년생 화려했던 목표 또렷이 보여준다. 88년생 생각은 짧게 단순함을 가져보자. 00년생 생일 치른 후에 무용담이 펼쳐진다.</p>	<p>53년생 충추고 노려하고 흥에 취해보자. 65년생 헛된 기대 길쭉국물 마셔야 한다. 77년생 답답한 처지 우렁각시가 다 내려간다. 89년생 자세를 낮추고 들은 귀를 가져보자. 01년생 다른 별인연과 사랑은 만들어가자.</p>
<p>54년생 가을에 취해지는 나들이를 해보자. 66년생 수고했던 의미 잔치가 벌어진다. 78년생 진짜와 만나려면 노력을 더해보자. 90년생 냉정한 평가에 반성문을 써. 02년생 물뱀을 모르는 칭찬을 들어보자.</p>	<p>55년생 과정은 거칠어도 결과는 화려하자. 67년생 진짜 행복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79년생 한창이던 준비가 길을 잃을 수 있다. 91년생 소박한 버림은 현실이 되어준다. 03년생 밝아진 미래로 거침없이 달려가자.</p>	<p>56년생 아닐수 있다 의심 뒷걸음쳐야 한다. 68년생 쉽게 하는 포기 꼬리가 달려간다. 80년생 분위기는 최고 애정 표현 해보자. 92년생 예상했던 실패 경순하게 받아. 04년생 눈아지는 연성 서로에게 피곤하다.</p>
<p>57년생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다. 69년생 긍정의 마음 기쁨 반전의 시작이다. 81년생 주인이라는 책임 강하게 해야 한다. 93년생 귀한가 르침에 고개를 숙여. 05년생 발군의 실력이다 칭찬을 들어보자.</p>	<p>58년생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 70년생 부끄러움 없는 차선을 가져보자. 82년생 중단 없는 전진 앞만 보고 달려. 94년생 단단한 결심을 지키고. 06년생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더해보자.</p>	<p>47년생 혼자 하는 자량 초라해 보여진다. 59년생 연애하던 강경 도둑개 태운다. 71년생 백점인 거머쥐어 도장이 찍혀. 83년생 인기에는 미소기분은 구름을 타. 95년생 두말 하는 변명 관상에서 자취한다.</p>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p>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p>	
<p>회 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p>	<p>편집인 권광춘 편집국장 박신주</p>
<p>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p>	<p>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안로 20번길 8, 2층</p>
<p>대표전화 (062)525-9775</p>	<p><팩 스> (062)528-4566</p>
<p>회장실 (내선)210</p>	<p>편집국 교 2001</p>
<p>임원실 (내선)207</p>	<p>정경부 교 2003</p>
<p>총무국 교 2002</p>	<p>사회부 교 2004</p>
<p>광고국 교 2006</p>	<p>사업국 교 2007</p>
<p>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1부700원</p>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 경부고속도로 50주년